

## John Oswalt 박사, Kings, 세션 7,

### 열왕기상 6-7장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오늘 밤 여러분을 만나서 반가워요. 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의 큰 덩어리인 6장과 7장을 보고 있습니다. 배경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에서 성전을 광범위하게 다룬 점을 고려하면 성전이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중심 주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에.

그다음에는 요아스의 중건, 요시야의 중건, 율법책의 회복, 히스기야의 중앙집권적 예배의 처리가 있다. 나는 책에 나오는 성전의 중요성을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사실 요점은 성전의 부차적 성격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싶습니다. 성전은 중심이 아닙니다.

중심이 되는 것은 성전이 대표해야 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러한 헌신이 있다면 성전은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실제로 건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말했듯이, 우리가 실제로 우리 자신을 그분으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이러한 상징을 사용하려고 할 때 야훼가 이러한 상징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경멸은 거의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사야서 1장을 언급하고 약 50년 동안 신학생들에게 때때로 이사야서 1장 10절을 사용하여 교회에서 예배하라는 부름을 따르도록 도전해 왔다고 학생들에게 언급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 생각엔 누구도 그런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부르심 후에 어떤 목사님도 해임되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언어가 두꺼울 뿐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으라

그러면 처음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지 않을까요? 고모라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교훈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그 많은 제물이 내게 무슨

상관이나 나에게서는 숫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이 넉넉합니다. 나는 황소와 어린 양과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네가 내 앞에 나타나려고 올 때에 누가 네게 이런 일, 내 뜰을 짓밟는 일을 요구하였느냐? 정말 좋지 않을까요? 좋은 아침이에요. 그런데 누가 너희들에게 여기로 오라고 하였느냐? 무의미한 제물을 가져오지 마십시오. 나는 너희 향을 가증히 여기느니라

월삭과 안식일과 성회, 성회와 불법을 나는 참을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책에서 성전이 중요한가요? 전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중심 주제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심 주제는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헌신이며, 이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드러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께 헌신한다면, 우리가 그분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그것을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그 상징은 훌륭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심오하게 영적인 무언가를 눈에 보이고 물리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현실이 없다면 하나님은 상징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성전은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에 건축되었다고 나옵니다. 나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480은 12에 40을 곱한 결과이기 때문에 약간의 의문이 있습니다. 원한다면 두 개의 완전수입니다. 완전성과 전체성을 상징하는 두 개의 숫자.

그래서 480년이라는 것은 좀 깔끔합니다.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가서 그것이 문자 그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성전이 기원전 960년대에 지어졌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출애굽이 기원전 1440년대에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룹들은 활과 화살을 가진 뚱뚱하고 작은 천사들이 아닙니다.

아마도 스프링스일 겁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자의 앞부분, 소의 뒷부분, 사람의 머리, 독수리의 날개일 것입니다. 이는 이집트와 앗수르에서 궁전 문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형상의 조합이 에스겔이 보는 네 얼굴의 존재라는 점도 흥미롭다. 사람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소의 얼굴, 사자의 얼굴. 그래서 다시 한 번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호천사, 수호군으로서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들이기에 그 안에 있는 언약을 지켜주는 인물들입니다.

한 마디 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저는 왜 성전에 배, 즉 언약궤가 있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방주(ark)는 상자를 뜻하는 1611단어이다. 노아는 상자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약 상자라고 말하는 것이 그다지 거룩하게 들리지 않지만 그것이 바로 그 것입니다.

언약 상자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그룹들은 상자 안에 있는 언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성전의 한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래대로 정확하게 구성할 수 있는 모든 차원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아마도 꽤 좋을 것입니다. 이제 이 배치(바깥뜰, 현관, 안쪽의 주요 방, 그리고 가장 안쪽의 작은 방)는 이 지역 전체에 걸쳐 있는 가나안 사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반복해서 복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묘사된 장식물인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석류들과 백합화들은 가나안의 다른 성전에서 알려진 장식물들이다. 그래서 질문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가나안 성전인가 아닌가? 이스라엘 성전인가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둘 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당신은 언제든지 내 이성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가나안 성전에서는 가장 안쪽 방에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 건물은 바로 우상신의 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상 신이 먹을 수 있는 식탁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등잔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 신이 어둠 속에서도 기분이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곳은 우상 신의 궁전이었습니다.

아이돌이 아닌 상자 하나의 극적인 차이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원칙으로 보는 것이요, 성육신의 원리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경험 속에 성육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상의 형태를 취하고 가능한 한 그 형태를 사용하시되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가 부른 노래는 이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여기 미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음악 형식이 아이작 왓츠 펜(Isaac Watts Penn)이 작곡 한 훨씬 더 차분한 찬송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자,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압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 아름다운 성전 단지에 와서 이교적 관점에서 생각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여호와와 그의 집이니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선한 일을 행할 것이요 여호와께서도 내게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

나는 그를 조종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른 것을 전달하기 위해 인간의 형태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끔찍한 위험을 감수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수년에 걸쳐 많은 학생들에게 이것을 말해왔습니다. 하나님은 매우 경제적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래된 것을 활용하고 변형할 수 있다면 왜 새로운 것을 시작해야 할까요? 사람들에게 친숙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면. 무지개.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언어를 사용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언어에는 놀라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는 우리 중 하나가 되는 끔찍한 위험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초대교회의 투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글썄, 그는 인간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신이다. 그러므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즉, 그는 신이다.

그는 길을 걸을 때 뒤에 그림자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일종의 신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공의회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그가 100%라고 결정했습니다. 100% 신이고 100% 인간이다.

그리고 100%에 100%를 더하면 100%가 됩니다. 설명해주세요. 음 ... 아니.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음악 전쟁의 문제입니다. 현대의 젊은 세대는 내가 좋아하는 음악, 찬송가를 보고 기독교는 오래되고 느리고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 형태를 보고 그 형태로부터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마음에 호소하는 형태를 원합니다. 당신을 정말로 감동시키는 형태.

신학교 동료 중 한 명인 그의 어머니는 남부 가스펠 음악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말은, 발을 움직일 수 없으면 마음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글썄요, 하지만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아주 이해할 수 있는 형식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거룩한 성전은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모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형식이 내용을 압도하는가? 여기 계신 여러분 대부분이 내 또래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여러분은 나에게 물건을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 기독교 음악을 많이 보면 참여가 보이지 않습니다. 노래부르는 공연을 봅니다.

그것은 내가 별로 사고 싶지 않은 기독교 신앙에 관해 나에게 뭔가를 말해준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음악감독과의 4부 화음을 좋아한다. 이제 그것은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 제 요점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나에게는 형식이 내용을 압도하는데,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사람들이 즉시 이해할 수 있고 즉시 친숙한 것을 사용하시며,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잘못된 결론을 도출할 위험을 감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는 의사소통을 위해 기꺼이 그런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가나안 사원의 고고학적 유적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정사각형이고 훨씬 더 대칭적입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다른 건물들은 정사각형도 아니고 대칭도 아닌 경향이 있었습니다. 응, 맞아, 현대 건축물이 있지, 응, 응.

그렇습니다. 성막은 우리에게도 같은 종류의 것들을 줍니다. 길이와 너비는 서로 비례합니다. 내부 공간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네 면이 모두 같은 크기입니다.

네, 그게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더 멀리 되돌아가게 됩니다. 성막은 왜 대칭적이고 정사각형이었는데? 질서 있게 행동하는 품위와 질서의 신.

데이비드, 당신은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응, 응.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네 개의 정사각형으로 된 성이 세워졌습니다.

네, 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 것 같아요. 나는 확실히 그것을 증명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그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에는 식별 가능한 원인과 식별 가능한 결과가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게 순서대로 야.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의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다시 한 번 그가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히 말하면 그는 그것을 자신의 본성과 성격을 반영하는 완벽한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뉴 리빙 바이블(New Living Bible)의 이 부분을 살펴볼 때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재미있는 설명이나 토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항상 우리의 토론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리고 우리는 히브리인 네다섯 명이 이것에 관해 길고 긴 토론을 하곤 했습니다.

작업이 끝나면 영국 스타일리스트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라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업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벽에 들어가는 광선은 없었습니다.

측벽의 단면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측면에 있었고 거기에 지붕 들보가 놓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붕 들보가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상단 지붕 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광선도 벽을 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망치질 소리도 없었습니다.

이것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방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생각엔 그게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엔 그게 맞는 것 같아.

물리적으로 침입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청각적으로 침입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에게, 그의 완전성과 그의 절대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은 모두 잘려 약 40마일 떨어진 곳에서 채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모든 것이 분명히 번호가 매겨지고 표시되어 제자리에 놓이게 된 현장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망치질도, 끌질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엔 그게 바로 핵심이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에게, 그의 평온함과 그의 평안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가 세상에 주실 샬롬. 우리는 이미 이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것을 좀 더 밀어붙이고 싶습니다. 619년 그는 여호와와의 언약궤를 놓기 위해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다.

이제 내가 말했듯이, 다른 모든 성전에서는 모든 초점이 거룩한 곳에서 있는 우상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거기에는 거대하고 거대한 성모 아테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는 활짝 열려있었습니다. 잘린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이곳은 신, 즉 여신의 성전입니다.

여기에 우상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그분은 인간이 지은 그 어떤 것에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음-흠. 또 뭐야? 그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는 제작자입니다. 물론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이다.

우상 숭배에 대한 가장 통렬한 조롱은 당신이 그 신을 당신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도에 있었을 때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길을 걷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이중 테이크를 했던 것 같아요. 지나가다 보니 우상을 만드는 남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우상은 코끼리 신의 것이었다. 그 사람 이름이 뭔지는 잊어버렸는데 그 정도 크기였고 모든 단계에 걸쳐 갖고 있었죠. 일부는 여전히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그것을 점토나 치장벽토로 덮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덮었지만 칠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는 반만 칠했고, 일부는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해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신인가요? 이제 나는 그들이 뭐라고 말할지 압니다. 아, 아직은 신이 아니군요.

당신은 그것을 봉헌해야 하고 다른 모든 것들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을 당신의 손으로 만들었느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는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창조자입니다. 그는 당신이 아니라 창조자입니다. 알았어, 좋아.

우상이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해 또 무엇을 말해주는가? 맞아 맞아. 그는 건물에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는 창조 속에도 머물 수 없습니다.

그는 이 세상이 아닌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를 쳐다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피조물이므로 창조주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는, 그의 존재는 우리를 산채로 튀길 정도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캐런이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지만, 나는 성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두 가지 경험에 너무나 매료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였습니다.

24장에서 언약이 봉인된 후, 장로들은 도중에 산으로 초대되어 하나님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문자에는 실제로 그들이 그를 직접 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10장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본 것이 실제로 그의 얼굴이 아니라 표현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의 발 아래의 포장 도로는 푸름의 천국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산에서 표류하면서 오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 진짜?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 나요? 그의 발 밑에 있는 포장도로를 봐야 했어요. 마치 천국 같았어요. 글썄요.

그의 발은 어떻게 생겼나요? 당신은 그 포장 도로를 봐야 했어요. 그것은 훌륭했다. 그의 신발 밑창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그 포장 도로를 봐야 했어요.

아, 도로에서 말이 멈추네요. 수년 후에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야는 성전 밖으로 떠내려 왔습니다. 나는 방금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 와우.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겼 나요? 당신은 그의 옷자락을 보았어야 했습니다.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좋아요. 그 옷은 어떻게 생겼나요? 그 밑단을 봐야 했는데. 즉, 세상에 그런 건 없다.

아, 말이 옷자락에서 멈춘다는 뜻이군요. 응. 응.

그는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 속에 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우상도 우리에게 또 무슨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신비롭다.

우리는 그를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상이라는 말은 꽤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가 세상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교에서는 신이 이 세상의 일부입니다. 신은 세상이다. 그리고 여기, 이 책 하나만으로, 이 책 하나만으로 그는 세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죽었고 더 잘 알고 있는 우주론자 칼 세이건(Carl Sagan)은 매우 직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이 우주가 전부입니다. 이 우주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반대편에서 인사를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거기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생각할 수 없는 어리석은 원시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야, 자기야. 더 이상 없습니다.

잘못된 문법을 용서하세요. 이거 야. 아니요, 이건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너머, 세상 너머에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차이, 아이돌이 아닌 상자, 상자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더 하고 싶은데, 현실을 바라보는 180도 다른 관점이다.

나는 여기에 주차하고 상당히 난해한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지만 오늘 밤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본문에 따르면 내부가 금으로 완전히 늘어난 건물이 있습니다. 금으로 입힌 삼나무 벽.

믿을 수 없는. 그러나 지난주에 내가 말했듯이 솔로몬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홍해와 그리스 사이의 두 무역로를 통제하면서 그런 종류의 현금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가나안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세 대륙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볼 때 불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능하다고 믿을 만한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에 대한 이러한 매혹적인 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교도들은 바다가 영원하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항상 존재해 왔던 혼돈, 물 같은 혼돈이었습니다. 신들은 바다에서 나왔고 결국 바다, 이 혼돈을 이용하여 세상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과는 꽤 추악했습니다.

이것을 단지 하나님의 복합체의 일부로서 바다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내부 가구, 3개, 램프 스탠드. 그리고 다시 로마 자료에는 촛대에서 캡처한 촛대의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법을 배워야 해요. 그리고 일곱 조각으로. 원래 성전에 있는 것은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으나, 성막에 있는 것은 나무였습니다.

가지가 달린 금으로 만든 아몬드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있는 팔다리에는 아몬드 꽃봉오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싹 위에는 램프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 구약시대 등불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테두리가 말려 있고 입술이 있는 평평한 접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리브유를 바르고 심지를 꽂아 심지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램프가 그 위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등잔대였습니다. 아마 솔로몬의 성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부조가 보여주듯이 헤롯 성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신은 램프가 아니라 양초를 담는 이 촛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신약 시대에는 가장자리가 완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름을 넣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심지를 위한 또 다른 구멍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열 처녀가 결혼식을 위해 들고 다녔던 등잔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심지가 등잔에 있는 기름을 태워 버리기 때문에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나는 그것이 아버지가 헛간으로 가지고 가던 등불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 그런 램프였어. 그 테두리가 점점 더 커지고 마침내 모든 것이 닫힐 때까지의 역사는 흥미롭습니다. 연속적으로 램프의 날짜를 아주 아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는 등대와 상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몇 분 후에 그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무엇이 올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6장 38절, 열한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성전의 모든 부분이 그 설계대로 완성되었더라. 그는 그것을 짓는 데 7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7장 1절을 보면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는 데 1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는 레바논 숲으로 궁전을 지었습니다. 7절에 그는 왕좌의 홀, 곧 정의의 전당을 건축했습니다. 8절, 그리고 그가 살 궁전.

그는 자기가 결혼한 바로의 딸을 위해서도 이 홀과 같은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위해 7년, 왕궁을 위해 13년. 그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꽤 분명하지 않나요? 그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레이아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제안된 레이아웃이 있으니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프닝 슬라이드에서 제안한 것처럼 그가 실제로 건설하고 있던 것은 왕실 단지였습니다.

성전은 이 거대한 건축물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야훼가 누구인지, 솔로몬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할 것은 내 종교에서 누가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말하지만, 나는 솔로몬에게 불친절하거나 성경에 거짓되게 행동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의 헌신의 기도는 놀라운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시 성경의 영광의 일부입니다. 열려 있거나 닫힌 케이스가 아닙니다. 검은색도 흰색도 아니고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솔로몬의 종교에 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 진심이였을까, 아니었을까? 알았어, 알았어. 아마도 그것은 약해지고 있을 것입니다. 알았어, 알았어.

예, 그렇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는 그 언어를 좋아한다.

그는 붙잡혀서 무엇에 붙잡혔습니까? 알았어, 알았어. 물론 그 숫자는 우리를 약간 놀라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예, 예, 예.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고 계시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그리고 제가 지난 주에 말했듯이, 중요한 점은 당신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예, 귀에서 금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사원 전체와 다른 모든 곳에서 사용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까요? 글썄요, 제가 직접 궁전을 지을 것 같아요. 붙잡혔다. 나는 이 아내들의 이교 신앙이 전염성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교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는 종교적인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예, 우리는 모두 "모든 위대한 남자 뒤에는 위대한 여성이 있습니다"라는 버전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 가능성은 무엇입니까? 예, 예, 예, 예, 예,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타협하십시오. 그리고 시력을 상실하는 날이 옵니다.

그렇다, 비교와 경쟁력이다. 음-흠, 음-흠, 음-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왜 그것을 보여주면 안 됩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왕을 두는 것을 의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하여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할 때, 제가 지난 주에 공유했듯이,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다고 사무엘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이 얻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원하고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얻게 될 것이다. 아, 나 말고, 나 말고.

따라서 문제는 항상 내가 얼마나 가장자리에 가까이 다가가서 떨어지지 않고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항상 질문은 '나는 얼마나 예수님께 가까이 살 수 있는가?'입니다. 내가 그 사람과 얼마나 작은 사람이 되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사람과 같아질 수 있습니까? 찰스 웨슬리는 “도와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접근 방식은 타오르는 불을 끄려는 자부심이나 잘못된 욕구를 느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당신은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과 립서비스 사이의 미세한 경계에 대한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대륙분리와 같습니다.

두 방울의 물이 떨어지면 하나는 태평양으로, 다른 하나는 대서양으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보는 사진입니다. 이제 더 이야기하기 전에 다시 돌아가서 사찰의 상징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피 흘림 외에는 죄 사함이 없느니라. 죄는 진짜입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치명적이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면 누군가는 죽어야 합니다. 내가 아니라면 양.

그리고 하나님은 미가가 와서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라고 말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죄 때문에 양이 죽을 수 있습니까? 대답: 아니요. 내 아들은 내 죄 때문에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맏소사,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은 “잠깐만 기다리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은 김. 신약성서에는 두 가지 아름다운 진술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26절 중 하나입니다. 그분께서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씻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침에 샤워를 하면 이것도 씻어야 합니다. 거룩한 곳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씻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씻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씻어주나요? 누가 나를 씻고 있나요? 그런 다음 들어갑니다. 거기 등잔대가 있어요.

아, 우리는 하나님께 빛을 드려야 합니다. 아니, 아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글쎄, 우리는 하나님께 점심을 드려야 해. 아니 아니. 나는 생명의 떡이요 제단이요 향단이니라.

계시록에서는 성도의 기도가 향과 함께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제단에서는 밤낮으로 불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 성령의 씻음, 빵, 빛에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즉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궤는 어떻습니까? 거룩한 곳에 있는 상자입니다. 이미 말했듯이 아이돌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대변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니시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를 대표할 수 없고, 이 세상을 통해 그를 조종할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좋은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자는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돌이 들어 있는 상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막 안에 만나가 담긴 그릇이 있었고, 아론이 잡은 지팡이에 꽃이 피어 그가 고라나 다단이 아닌 대제사장임을 증명했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찾은 참고 문헌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만나와 지팡이가 상자 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상자의 길이는 고작 3피트였습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상자 안에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상자에는 돌 두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대제사장은 뚜껑에 피를 뿌렸습니다.

이제 다룰 용어는 kaphar , KAPHAR입니다. 말 그대로 덮는다는 뜻이다. 비유적으로는 덮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같은 동사. 그래서 영어에서는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책임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Coverdale이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이 창조된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단어인데, 같은 동사예요.

그리고 뚜껑이나 덮개라는 단어, 덮개, 명사. 그래서 대제사장은 해마다 뚜껑에 피를 뿌렸습니다. 루터가 1300년 만에 처음으로 히브리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한 히브리어를 독일어로 번역할 때 이 단어를 발견하고 그곳이 속죄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어로 번역된 독일어 용어인 속죄소, 덮개의 장소라는 단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훌륭한 이중 입장입니다. 죄를 덮는 덮개입니다.

자, 무슨 일이죠? 하나님은 내가 상자 너머로 당신을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룹들이 있는 상자는 뚜껑 있는 금 안에 부어 넣습니다. 여기 언약의 돌판이 있습니다.

깨지고 부서진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당신이 그들을 멀하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들을 죽여야 해요, 신이시여.

그들은 나를 지키겠다고 피를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만일 우리가 이 계명 중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수백 개를 깨뜨렸어요, 맙소사.

만약 당신이 정당하다면, 당신은 그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멸하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내가 길을 만들게요.

뚜껑에 피를 뿌린다. 그리고 내가 그 피를 보면 용서하리라. 그러므로 이것은 신을 조종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신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서 행하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결코, 결코 세상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조절되는 불변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아닙니다. 아니, 여기 우리 세계에서요. 그리고 그는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속박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분과의 배타적인 관계로 부르셨고, 이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성품을 복제하게 됩니다. 나는 너를 내걸로 만들고 싶어.

내 것뿐이야. 그리고 나는 당신이 나처럼 보이길 바랍니다. 좋아요? 그리고 그들은 물론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지만 내 길을 원한다고 말하는 우리 내면의 다섯 번째 기둥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점을 이해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길을 만들 것이다.

우리가 걷는 동안 나의 정의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도록 나는 길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우리를 만납니다. 나는 그 상자 위에서 당신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린 양의 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 관계, 그 지속적인 관계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의 은혜에 응답하여 살았던 신실한 삶의 맥락에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우리가 불신실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라, 신실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 방이 더 이상 폐쇄되지 않을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휘장이 둘로 찢어지는 날, 우리는 어린양의 피를 통하여 그분께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기억나네요. 네. 그것이 바로 우주입니다. 그것이 모두 창조된 것입니다.

이교의 세계관에서는 이것이 전부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우주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이 있습니다. 자연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것은 2차원 그림이므로 그 점을 잘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계는 투과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 제대로 하면 신의 세계에서는 자동으로 재현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신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연에도 자동으로 재현됩니다.

아니면 내가 자연에 행한 일이 신의 세계에서도 재현될 수도 있다. 이것이 연속성의 세계관이다. 우주의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연속적입니다.

경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아내 사이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신부가 신부와 함께 결혼식 밤을 보냈습니다.

결혼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인간과 소 사이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의식에서는 수간도 그 일부였습니다.

종교적인 발언이었습니다. 동성애도 그 일부입니다. 경계가 없습니다.

근친상간도 그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8장과 20장을 읽고 긴 목록을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딸과 성관계를 갖지 마십시오.

시어머니와 성관계를 갖지 마십시오. 너는 소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슬프게도 하나님이 정말로 여기에 전화를 끊으셨다고 말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아주 이상한 말을 하고 있군요. 이 세상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네요. 나는 가나안 농부입니다. 비가 절실히 필요해요.

나일강이나 유프라테스강처럼 관개용수를 얻을 수 있는 큰 강이 없습니다. 지중해에서 폭풍이 몰아쳐야 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늘의 신과 땅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글썄, 나는 내 지역 여사님에게 가는 길로 갈 예정이다. 그녀는 이미 여신과 동일시되었습니다. 나는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의식을 행합니다.

우리는 함께 침대에 뛰어든다. 무슨 일이야? 신과 여신이 함께 침대에 뛰어든다. 무슨 일이야? 하늘은 땅을 함침시킵니다.

이것에 대해 충분히 오랫동안 생각한다면, 당신은 다시는 비를 맞으며 걷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연속성의 세계관이다. 그래서 이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아이돌이다.

돌이나 나무로 만든 인간의 모습을 한 신. 그 반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곳은 이 다른 관점을 가르치는 세계 유일의 장소입니다.

초월의 세계관이다. 신은 우주가 아니다. 그는 우주 밖에 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이 아닌 사람입니다. 이것은 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거나 이해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빠른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올라가 그분을 모셔 내릴 수 없습니다. 신약성서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와 자연 사이에는 단단하고 빠른 경계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우리 문화에서 점점 인기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우리는 옷을 입은 침팬지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언어에 대한 이상한 능력이 있지만 동물은 동정심을 위해 의사소통을 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창조라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22절, 하나님은 큰 바다 괴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이교도들에게 있어서 모욕적인 일입니다. 태초에는 바다 괴물이 있었고, 그 속에서 우리 모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니, 아니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바다 괴물을 창조했습니다. 또 한 번은 그분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다른 다섯 창조물은 모두 인간입니다.

우리는 존재의 질서가 다릅니다. 그러니 감히 소와 성관계를 갖지 마십시오. 불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학적 진술이다. 그것은 지독한 신학적 진술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경계를 넘을 수 없지만 그분은 넘실 수 있고, 넘으십니다.

그는 자신의 타자성을 잃지 않고 원할 때마다 그것을 건널 수 있습니다. 그의 거룩함을 잃지 않고. 성전에는 우상이 없습니다.

거기는. 지금, 정확하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더 잘 알지 못한다면 성경이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간단합니다. 아무도 내 삶의 조건을 말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조건은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미안, 애야, 그건 안 될 것 같아. 그렇죠,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요.

그것은 경계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이고 저것은 악이라고 말할 권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방식입니다.

악은 그가 세상을 만든 방식에 반대되는 모든 것입니다. 알았어, 다 그 사람 잘못이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픽인가요? 성전의 크기를 보고 다른 모든 것을 보십시오.

레바논 숲은 그가 모든 금방패를 걸었던 무기고였을 것입니다. 왕좌의 방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줄에 매달리지 않도록 노력하세요.

이것은 진입로, 기둥의 홀입니다. 솔로몬의 집과 바로의 딸의 집이 마침내 감람산에 건축되기까지. 자,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추측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정확한 차원을 갖고 있지 않지만, 설명된 내용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원이 무엇인지에 관해 모든 종류의 의미를 갖습니다. 네, 이것이 제가 처음에 그것이 왕실 단지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사원은 단순히 왕실 단지의 일부입니다.